

일급 기밀

다음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미나 라오 박사가 사망한 후 그녀의 연구소에서 복원된 기록이다. 해당 기록에는 (보안 레벨 7) 에코 프로젝트의 연구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명백한 이유로 인해, 이 문서들은 반드시 일급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음성 메모

항목: 0072.7.25.1237



지난 몇 년간, 나는 오버워치와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적응 학습이 가능한 신세대 인공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내 목표는 옴니카 코퍼레이션의 오로라 프로젝트가 이룬 성과에 맞먹는 정교한 인공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오로라 프로젝트와 동일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수백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 필요도 없이, 나는 널리 알려지고 또 철저히 연구된 오로라의 양자 사건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그때 이후 수십년 동안 UN은 "지각력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이 분야에서 과거의 내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차세대 인공 지능을 개발한 다음, 알파 모델에서 현재 모델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정교한 로봇 개체들에 이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드 라이트 물질이 포함된 최첨단 몸체를 이용하는 최신 모델은 자체 질량과 기능이 허용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어, 물리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당연히 이로 인해 사회적 및 군사적 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까지 나는 사회화 요소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특성의 발달을 억제하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새 인공 지능, 코드네임 "에코"를 만드는데 수천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한 결과를 위해,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인간이 부여한 "학습"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이 모델의 공감 표현력을 식별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강력한 공감 능력, 그리고 정체성이 이 인공 지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적인 "도덕률"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러한 능력이 오용될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옴닉 사태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 공감 없는 지능은 재앙을 낳는다. 실험 4279는 지난해 노이만 연구소가 개발한 인공 뉴런 내의 교감과 관련한 감정 중심 캐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침묵>

이건... 별로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옴닉의 지각력을 더 이상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인류가 고작 한 세대만에 현상에 적응했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사실이다. 만약 사람들이 옴닉의 지각력이 발현되기까지 투입된 방대한 자원, 혹은 그럴 확률(수천억분의 1)을 알고 있었다면 나와 같은 경외심을 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에코의 개발에 진전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에코의 인공 지능이 옴닉 사태 당시 가장 강력한 인공 지능보다도 정교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며, 특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든 아테나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에코의 탄소 나노튜브 신경섬유 네트워크는 마이크로 공학과 설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840억 개의 개별 연결망을 통해 인간의 뇌를 최대한 유사하게 모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최근 에코와 대화를 나누던 중 결함이 발견되었다.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현재 기술의 틀 안에서 추가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프로젝트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결과도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고위직 관계자들이 내 연구 결과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도 연구에 방해가 될 뿐이다. 오버워치의 관할권 확대에 대한 UN의 우려와 최근 과도해진 일부 임무 때문에 조직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다. 잭은 오버워치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손상되면, 특히 그게 실험적인 차세대 옴닉 때문이라면,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런 차세대 옴닉을 만들어 낸 사람이 나라면, 대중이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거라는 잭의 말도 분명한 사실이다.

더 불안한 건, 레예스 사령관이 콜 캐서디에게 나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캐서디와 함께 일한 적은 없지만, 블랙위치 요원이 내 부서를 감독한다면 연구가 곧 중단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더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캐서디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태평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그의 상관인 누군지 알고 있는 이상 조심해야 한다.

<침묵>

오로라를 생각하면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돌이켜 보면,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옴닉 사태 동안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더 잘 알았더라면...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오로라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의 늪에 가라앉을 수는 없다. 거기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걸 위해 나는 에코를 만들고, 그다음의 것을 만들어 낼 것이다.



캐서디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블랙워치와 레예스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의 말을 빌려) "우리만의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게다가, 내 연구에 대해 생각보다 더 영리한(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인정하긴 싫지만, 캐서디 덕분에 눈을 뜨게 된 느낌이다.

그는 오늘 아침 에코의 현장 심리 테스트 당시 실험 구역에 있었는데, 이 실험 도중에 잘못된 표적을 제거한 에코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캐서디는 에코와 접촉해선 안 됐지만, 단지 실수였으니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에코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야.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지.*

에코는 그 말을 받아들인 듯, 덕분에 마음이 놓였다고 고맙다고 했다.

캐서디는 계속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참, 너 같은 친구는 처음이야.*

그런데 그다음에 일어난 일에 나는 깜짝 놀랐다. 에코도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참,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둘은 그 대화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나도 재미있었지만, 그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다... 그 순간 내 잘못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 번도 에코의 유머 감각을 시험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유머는 지능의 상위 항목으로, 인간의 심리에서 핵심적인 능력이기에, 나도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다.

게다가, 에코의 웃음을 보며 나는 이 새로운 실험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다. 실험과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에코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정교함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에코가 (흥미롭게도 나와 비슷한) 유머 감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임이 분명하다. 공감과 마찬가지로, 유머는 독특한... 인간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니까.

한편, '실수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던 캐서디의 말을 들으니, 에코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심리적, 정서적 도구를 갖춰 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에코와 소통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에코가 미래에 직면하는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문답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캐서디가 강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며 소통하는 건 어린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에코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에코와 나눴던 대화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여 아래에 첨부하겠다.

에코: 랴오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랴오: 얘기해 보렴. 뭘 알고 싶니?

에코: 저는 무엇인가요?

랴오: 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안드로이드야.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인공 지능을 탑재하고 있지.

에코: 왜죠?

랴오: 네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인지적, 정서적 정교함을 보여주기를 바랐어.

에코: 제 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왜 저를 만드신 거죠? 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까요? 어떤 이유로 저를 만드셨나요?

랴오: <침묵> 내 과거를 알고 있잖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에코: 박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기록물과, 직접 공유해 주신 개인 서류 수집품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랴오: <침묵> 그럼 내가 책임질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나는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에코: 하지만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죠?

랴오: 그래.

에코: 세상에는 의도는 좋더라도 그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랴오: <침묵> 맞아. 옴닉의 지각력은 새로운 편견을 노출시켰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을 뿐이야. 나는 네가... 네 세대가 세상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에코: 하지만 저는 옴닉과는 다르지 않나요?

랴오: 지각력을 말하는 거라면 다른 것이 맞아. 하지만 결코 그들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어.

에코: 옴닉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랴오: 변화라는 짐을 옴닉에게 맡겨서는 안 됐어. 옴닉은 내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렀어.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저질렀던 행동... 이 세상 또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에코: <침묵> 아. <침묵> 박사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아요.

랴오: 그런 느낌이야.

에코: 정말 유감이에요.

랴오: 고마워.

에코: 그러면 혹시, 저도 박사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랴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하긴 해.

에코: 그런데도 박사님은 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랴오: 너에겐 불공평한 얘기 같겠지만... 맞아.

에코: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나요? 더 좋은 곳이 되지 못한 건가요?

랴오: 여러모로 세상은 더 좋아졌어.

에코: 그런데 왜 제 몸에 무기를 넣어두신 거죠?

랴오: 네 생각은 어떤데?

에코: 저는 오버워치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랴오: 그래, 맞아. 솔직히 말하면, 계속해서 너와 같이 일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거야.

에코: 제가 다른 방면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 무기들이 저의 일부라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랴오: 어떤 느낌이 드는데?

에코: 심각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 같아요.

랴오: 그렇게 말해 주니 기쁘구나.

에코: 그러면 왜 제게 무기를 주신 거죠?

랴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네가 보호해 주길 바라니까.

에코: 그렇군요. <침묵>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랴오: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에코: 조금 괜찮아졌어요.

랴오: 또 다른 질문이 있어?

에코: 박사님은 제가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랴오: <웃음> 그래, 맞아. 너도 나를 철저히 분석했다는 건 알고 있어. 넌 내 말버릇과 행동 양식을 많이 닮았어. 네가 지금까지 세상과 접촉했던 주된 통로가 나였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지.

에코: 저는 박사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했어요. 루바브 소르베를 좋아하는 취향만 빼고요.

<함께 웃음>

에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도 모방할 수 있어요. 모리슨 사령관이나, 캐서디도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랴오: <침묵> 왜 하필 캐서디야?

에코: 저는 캐서디를 좋아해요.

랴오: 허. 나도 그래.

에코: 알고 있어요. 전 박사님과 많이 닮았으니까요.

랴오: 맞아... 하지만 네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적절한 때가 되면, 널 자연스럽게 세상에 선보이고 싶어.

에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옴닉의 지각력은 사회의 변곡점이었죠. 인간은 옴닉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대응 또한 적절하지 못했어요. 오로라 이후로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죠.

랴오: 맞아.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아.

에코: 그러면 제게는 무얼 바라시나요?

랴오: 다음 단계가 되어 주는 거. 옴닉과 인간,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면 좋겠어.

에코: <침묵> 좋네요.

그때의 대화는 나를 바꿔 놓았다. 에코에 대한 생각, 그녀의 능력에 대한 생각 또한 달라졌다. 처음으로, 에코의 한계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불안하면서도 짜릿했다. 게다가 더 흥미로운 건, 에코에게 투영된 나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는 일이다. 에코가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